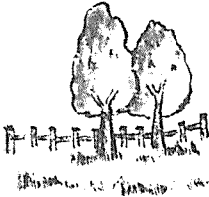


우리 조합의 신년계획



구 장 회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의료보험 시행 시점인 77년 7월에 발족된 코오롱 의료보험조합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사의 한 단면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보험재정이 급격히 상승하더니 불과 수년후부터는 적자를 나타내 보험료율을 3%에서 4%로 인상하였으나 이도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만큼 의료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으나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먼저 의료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기금을 이루고 그 기금으로서 병환이 발생시 재정적으로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집단마다 조합을 구성하여 남또는 나의 불의의 병고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의료 수혜를 받지 않으

면 복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관리를 맡고 있는 의료보험조합, 실시기관인 의료기관, 수혜자인 피보험자(또는피부양자)가 각자의 목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므로써 가능하고 복지사회가 앞당겨지리라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일환으로서 우리 조합의 신년도 구상을 잡아 보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의 재정 안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수혜의 폭을 넘는 부담을 주어서는 건전하게 유지될수 없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정확한 보험료 징수와 정당한 보험급여」라는 캐치프레이스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의료보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첫째, 홍보사업 - 우리 조합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들 스스로가 조합의 주인



◀ 우리 조합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를 보호하고
고져 노력할 것이다

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법, 규정, 실무 문제들을 그룹내 사보를 통하여 또는 리플렛등으로 분기별 때로는 수시로 홍보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 부당 진료방지-각 개인의 진료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구상권 발동여부, 대여행위, 년 180일 초과방지, 고액 진료의 정당성등을 확인하므로써 보험재정 탈추를 적극 막을 예정이다.

셋째, 사무의 능률화-보험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전산화를 추진하여 사무의 자

동화를 기함으로써 능률을 높이고 또한 사무 요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지식 계고에 노력할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원의 사기와 지식이 사무 능률을 높이는 최대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상과 같은 구상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현재까지 성장해온 우리 조합을 더욱 튼튼히 발전시키고 우리 조합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를 보호하고고져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단위 조합의 건전한 발전 위에 국가의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필자 = 코오롱의료 보험조합 사무국장)

《이달의 건강표어》

병든다음 치료보다 검사받아 예방하자

● 한국건강관리협회